

:: 주님을 향하여 ::

:: 글꾼의 주님 ::

단 하루를 살아도

한 집에 당나귀와 애완견이 살았다. 당나귀에게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다. 그것은 주인이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자기보다, 한 가하게 빈둥대는 애완견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자 하루는 애완견이 하는 모양을 연구했다. 어느 날 보니, 외출했다 돌아오는 주인에게 애완견이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피우자 주인이 기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웬대구나 여긴 당나귀는 다음 날 저녁 주인이 집에 돌아와 식사하려고 자리에 앉자, 마구간을 뛰쳐나와 집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고선 애완견마냥 경충경충 뛰며 앞발을 치켜들고 긴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이에 놀란 주인과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와 당나귀를 잡아가다 반쯤 죽을 만큼 두들겨 팼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거나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이솝우화이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당나귀가 애완견을 시기해 날뛰다 미친 당나귀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 속 당나귀를 응원한다. 비록 미친 당나귀 취급은 당했지만 끝까지 주인의 사랑을 갈망한 당나귀를 응원하고 싶다.

커다란 귀에 꺼병한 눈, 볼 상 사나운 입과 커다란 앞발, 도무지 그 모습이 사랑스럽

다 할 순 없지만 당나귀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애완견처럼 영리하지도 못하고 재빠르게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눈치도 없지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다. 그래서 주인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 주인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다. 주인이 맡기신 일에 온전히 충성했기에, 당나귀는 자신이 주인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자만이 가지는 당당함이다. 비록 주인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첫 도전이 미친 당나귀 취급과 모진 매였을지라도, 아마도 두 번째, 세 번째에는 그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한다. 모든 일에 미련할 정도로 정직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여기며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요령 없이, 약은 계산 없이 살았다. 그런데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적당히 아부하고 적당히 눈가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면서 점차 실망하고 마음이 닫히기 시작했다. 정직한 길을 걸으려는 사람보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의 길이 더 험통하게 보였다. 무턱대고 열심이었나 생각되면서 맥이 빠졌다. 한가롭게 빈둥거리는 애완견을 시기한 당나귀처럼 말

이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점차 깨달아진 사실은 그저 나는 내 길을,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이라고 해서,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 누구’라는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며,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는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주인에게는 애완견은 애완견대로, 당나귀는 당나귀대로 소중하다.

하나님 앞의 내 모습이 어찌면 당나귀와 같을지 모르겠다. 잘 들리지도 않으면서 불품없이 크기만 한 귀에, 볼 상 사납게 툭 튀어나와 늘 불만 가득한 입을 가진, 미련하고 눈치 없는 내 모습과 닮아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인에게 사랑받겠다는 열정은 가득하지만 주인의 뜻도 모른 채 늘 앞서가는 모습까지도 많이 흡사하다. 그러나 이런 나일지라도 나의 주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눈치 없이 아무 때나 커다란 앞발 치켜들고 되지도 않는 애교를 부려도 마다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나귀처럼 사랑에 미쳐 보고 싶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행복만 저녁 만찬을 꿈꾸는 동화를 잃지 않는 나이기를 소망한다.

박영임 생도
jjambballqueen@naver.com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

수년 전,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중고차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했고, 선물해주신 분의 마음이 너무 귀해서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만물은 들을 귀가 있으니, 차에게 ‘조이(Joy/기쁨)’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운행을 마치면 “수고했어, 잘 자라.” 인사하며 수시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조이는 이전에 어느 여성분에게 주로 마트나 시장을 오가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주인이 바뀐 후에 임무가 달라졌습니다. 지교회 전도집회 때, 준비한 버스보다 전도한 어르신들이 넘치게 오셔서 조이가 바로 투입되었고, 집회 기간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드리기도 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운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실이 되어주기도 하고, 교회와 기도원으로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에 늘 함께했습니다. 또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는 곳에도 동행했으며, 때로는 저의 쉼을 위해 아름다운 곳에 데려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고도 고속도로나 위험한 곳에서 멈춘 적이 없고, 목적지까지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놓은 후

에야 쓰러지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다행히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수리하곤 했습니다. 조이는 노쇠한 몸에도 불구하고 버겁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뒤쪽에서 삐그덕 소리가 들렸지만 노후차라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기도원 집회를 앞둔 어느 날,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들린 삐그덕 소리가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원을 가야 하니 점검도 할 겸 바로 정비소로 달려갔습니다. 정비사님이 보자마자 큰일 났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부가 부식되어 뒷바퀴 쪽 스프링이 하부를 뚫고 들어간 상태를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차가 무너져내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서, 수리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 폐차하는 것이 낫겠다는 소견을 전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전 중요한 장례예배에 참석하러 지방에 급하게 다녀왔는데, 힘겨운 상태였음에도 마지막까지 주인을 안전하게 모신 후, 기도원까지 가기에는 위험한 상황임을 미리 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이를 보내고, 수십만 원의 고철값을 받았습니다. 작은 액수였지만, 조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마지막 조이

가 남긴 물질도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그대로 드렸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멋진 새 차를 선물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 적힌 차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금액의 100배였기 때문입니다. 새 차에 “드림이(Dream/꿈)”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조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드림이도 하나님께 충성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하곤 합니다.

충성된 조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상상해봅니다. “이전에는 시장을 오가는 데 사용된 평범한 차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을 만나 4년 동안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쓰임 받았고, 마지막 저의 전부까지 하나님의 일에 흘려갔으니, 저의 생애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8: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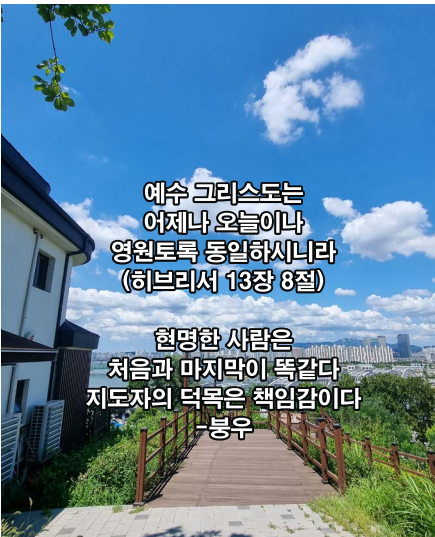
정명관 집사

벤허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 역전의 용사인 한 장군과 대령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가 종교 문제로 바뀌었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역사 속의 한 인간인 예수를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으로 운통 가 장한 것은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하면서 이들은 복음서의 많은 이적들이 하나의 전설이며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을 늘어놓았다. 장군이 말하기를 “진짜 예수에 관한 소설을 누군가가 써야 할 것 같소.”라고 하자 대령이 대답했다. “장군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이상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장군님은 묘사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령이 말했다. “그럼 내가 하지.” 자신 있게 말한 장군은 예수는 인간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면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목으로 2백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을뿐 아니라 영화화되었다. 그 책과 영화의 제목은 《벤허》다. 그 책을 쓴 장군의 이름은 류 월리스(Lew wallace)이며, 대령은 미국의 유명한 불가지론자 로버트 잉거솔(Robert Ingersoll)이다.

이 책이 유명해진 것은 월리스 장군이 예수는 한 인간임을 조사하다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류 월리스처럼 반대하는 자일지라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또는 예수를 반대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베드로의 일생에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16:17)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사람은 잘못 가르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이승호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현명한 사람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다
지도자의 덕목은 책임감이다
-봉우

**동우컬럼**

느헤미야 작전

지난 7월 11일, 행정 목사로부터 KBS88 체육관을 8월 말까지 비워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딱 52일!

문득 느헤미야를 떠올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성 재건을 단 52일 만에 이룬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았다.

우리는 일명 ‘느헤미야 작전’에 돌입했다. 52일 안에 거처를 옮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작전과 정신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첫째,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다. 그 중에서도 회개기도가 우선이었다(느1:6). 나는 서울성전 이전을 위해 40일 작정기도를 선포했고, 용서와 사랑을 강조했다. 하나님 마음이 흡족할 때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기도로 느헤미아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게 된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이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둘째,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외적보다 내적이 무섭다. 외부에 금이 가면 때우면 되지만, 내벽에 금이 가면 무너진다. 느헤미야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을 일깨웠다. 하나 되지 못하면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횡방꾼에 당할 것을 경고하고, 각성하게 했다. 우리도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서울교회는 서울 교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중심교단 아래 공동운명체다. 당연히 해외에서도, 전국 지교회에서도 서울성전 이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셋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신앙의 벽도 재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 대사를 하나님께서 이루
셨음을 깨닫고 흐트러졌던 신앙이 바로 섰
다. “성 역사가 오십 이일만에 열둘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
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느6:15~16).
나는 서울성전 이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
이 부활하기를, 신앙이 다시 바로 서기를 기
도한다. 새 술을 새 부대가 제격이니까.
나는 굳게 믿는다. 우리의 느헤미야 작전이
반드시 성공할 것을!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매사 최선을 다하라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忠誠)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 남에게 맡기면
사고 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예배 때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시대 목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보내는 잠언이다.

‘최선(最善), 이는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자 인생철학이다. 목사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는 말씀을 반복, 반복 실천하여 습관화하였고, 실천하심으로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을 일구셨다.

든, 결혼식장에서는 때를 가리지 않고 전도합니다. 일을 할 때도 ‘이것이면 됐어’가 아니라 ‘이것이야야 해’ 할 때까지 합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일하다가 밥 먹으로 간 적이 있는지.

여러분,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인데, 그 작품은 작가, 곧 내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하면 열과 성을 다하고 집중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지만, '대충하고 끝내지.' 하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삼류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림 그릴 때 밑그림이요, 건축의 설계도면 같은 것이기에 생각대로 작품이 나오고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기에 은 삼십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요. 그러나 항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 대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보는데 직원들이 대충할까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나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CC TV는 때로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나를 주시하고, 감찰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습관화하면 매사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 매사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삽시다. 그래서 이 땅에 멋진 작품을, 내 세에서의 명작을 남깁시다.”

목사님은 내세의 축복만 아니라 현세의 축복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축



2023 하계산상집회(8월 14~24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목사님께 대충은 없다. 사실 ‘대충’이란 말은 순 우리말이지만, 목사님은 대충을 대신할 대(代), 벌레 충(蟲)으로 풀어 ‘벌레가 인생을 다 먹어치운다’ 하시며 ‘대충이란 균을 잡지 않으면 망한다.’고 늘 강조하신다.

목사님은 2주차 산상집회에서도 아침저녁으로 말씀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집회 첫날 저녁, 목사님은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최선을 다한단 생각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최선을 다해 설교하셨습니다. “나는 매사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대총이나 얼렁뚱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명 앞에서나 십만 명 앞에서나 똑같이 설교합니다. 성도에게 축복기도를 해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흔들어 놓려 넘치도록 해줍니다. 목욕탕에서

낭에 예수를 팔았듯이. 그래서 성경은 말
 씁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
 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23:7).
 ‘대충’, ‘대강’,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와우아파트 무너지듯, 성수대
 교 무너지듯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꿉시다. 아리수가 아무리 좋아
 도 수도 파이프라인이 녹슬었으면 청량
 한 물을 마실 수 없듯, 녹슨 생각이 바뀌
 지 않는 한, 인생의 반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공부해야 하는 것도 아
 닌데 생각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이
 렇게 생각합시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
 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대강하고,
 언제 나쁜 짓을 합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복을 여는 마스터키가 바로 ‘최선’이다. 고린도전서 9장에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9:24)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 무슨 말인가? 모든 자들이 성공을 향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으뜸이 되는 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자라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는 머리가 되고, 내세에서는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자. 끝으로 산상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할렐루야!**

신묘수 전도사

페루집회를 위한 21일 작성기도
8월 14일(월) ~ 9월 3일(주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6:13~18)

나는 주님 말씀에 오직 'Yes' 뿐이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던 많은 친구들과/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요즘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목회 39년, 눈 덮인 산야요 물 없는 사막의 길 같은 힘든 길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담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 역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까?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쓰실까?’ 생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서라

첫째, 저는 주님의 말씀에 ‘No’가 없었습니다. 오직 ‘Yes’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성전 이전을 앞두고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91년, 서울교회 창립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소하기만 한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서울교회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현금으로 300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99%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 뜻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Yes’ 했습니다. 요즘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초석아,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답합니다. “백 번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예’ 할지.”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Yes”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11:8).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Yes”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못별과 같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

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22:15~18).
하나님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신28:1)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복을 송두리째 안길 뿐 아니라 세계와 만민 위에

어
난
자
가
되
게
하
신
다
고
약
속
하
셨
습
니
다.
(신28). 제가 그 샘플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기도 뒤에 붙이는 추임새가 아닙니다. ‘아멘’은 ‘웁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예’ 하는 것이요, ‘순종’이란 말과도 상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나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한 뒤 마게도나에 돌아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행전 16장 6~10절에 자세히 쓰여있듯 성령께서 마게도나로 먼저 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접고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그의 행위를 비판하고 바울을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적대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1:19~20).

군대에서 상관이 지시하면 이유불문하고 ‘Yes, Sir(예쎬!)’ 하듯,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예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라.’ ‘예쎬!’, ‘봉사해라.’ ‘예쎬!’, ‘전도해라.’ ‘예쎬!’, ‘용서해라.’ ‘예쎬!’, ‘사랑해라.’

‘예쎬!’, ‘기뻐해라.’ ‘예쎬!’, ‘감사해라.’ ‘예쎬!’ 그러면 하나님 이신 명

기
2
8
장
의
복
을
안
기
실
것
입
니
다.
둘째,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능력이 떠나지 않을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던 일을 반복하라.”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기도 중에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능력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하던 일을 반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막1:35), 낮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으며(막6:46), 철야기도도 하셨고(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그래서 저도 아침저녁으로 2시간씩 기도했고, 집회에 나가서는 7시간씩 기도했더니 능력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했을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매일 기도하면, 불이 매일 밝으면 귀신이 틈타지 않습니다. 또 매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신 주님이 매일 귀신을 쫓으신 것입니다(눅13:32).
여러분, 기도뿐 아니라 무슨 일에도 반복하게 되면 달인이 되고, 전문가가 됩니다.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 보셨지요? 10년 공부를 다짐하고 집을 떠났던 한석봉이 3년이 된 어느 날, 어머니가 보고 싶어 밤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반가운 기색도 없이 왜 왔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한석봉은 공부를 많이 해서 더는 배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불을 끈 후 자신은 칼로 떡을 썰고 한석봉은 붓으로 글씨를 쓰게 하여 둘의 솜씨를 비교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불을 켜고 보니 어머니가 썬 떡은 크거나 두께가 모두 일정했는데, 한석봉이 쓴 글씨는 비뚤비뚤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밤으로 한석봉을 다시 돌려보내 공부하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에 한석봉이 조선 최고의 서예가가 될 수 있었고, 후세에 그를 서예의 명인이라 일컫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평소 다윗이 물맷돌을 반복적으로 던져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을 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왜 첫사랑이 식을까요? 매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녹슬고, 반복하지 않으면 식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2:4~5).
티끌이 모아 태산이 되고, 작은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반복이 능력이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던 일을 반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풍설(風說)을 두려워하지 말자

‘풍설(風說)’이란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근거 없는 풍설이 있겠지만, 이로 인해 쉽사리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독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처럼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한 적이 있으며, 이런 괴담들이 전파될 때마다 국민들은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는데도 거짓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조차도 없습니다. 허망한 풍설을 만들고 전파하는 자는 사회적 중대 범죄자입니다. 거짓 말에 관대한 나라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너희 마음을 겁악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렘51: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근거 없는 풍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괴담이나 터무니없는 선동은 거짓의 아버지 악한 마귀의 체계입니다. 감정적으로 떠돌아다니는 풍설을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페스트가 창궐할 때 페스트를 옮기는 악신이 한 동네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시신을 실은 마차들이 줄을 지어 동네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 실제적인 질병보다 공포심이 더 위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풍설에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호들갑 떨고 속는 사람이 있으니 속이는 사람이 재미를 보고 새로운 괴담들이 자주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우면 자동차는 어떻게 타고 다니고, 어떻게 패스트푸드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괴담의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거짓말의 아버지는 악한 마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풍설에 요동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괴담을 퍼뜨리는 자도 악하지만 옮기는 자도 자신도 모르게 공범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원리적 이단들도 공포심을 조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옛 선전들의 가르침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떠도는 풍설에 겁을 먹거나 마음 약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말이 씨가 된다

인디언 속담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됐다고 간증하신다. “잘생겼어, 오늘도 건강해, 능력의 종이야...”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가르친다(잠18:20~21).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수학 외에는 전과목이 낙제였다. 담임선생님은 통신문에, “이 아이는 공부로는 희망이 없으니 다른 진로를 정하십시오.”라고 써서 보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너는 남과 다르단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남보다 나을 수 없지만 남과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남보다 훌륭하게 된단다.”라며 용기를 주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서울성전 이전을 위해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 불신이나 부정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긍정을 말하자. 흥해 앞의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가만히, 잠잠히 부정과 불평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이었다.

여리고 앞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성을 돌며 부정과 불평의 입을 닫으라는 것이었다. 목사님 또한 서울성전 이전을 위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정과 불평의 입을 닫고 기도하자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약3:2) 기록한다.

우리 이제 긍정과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자.

김상욱 목사



간절함의 열망, 그리고 그 가치!

어느 날 10세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이렇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매물 차게 말했다. 이제 69번째 가게, 아이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 가게 주인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다. 그는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 하려고 그러니?”라고 물었다.

아이는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나서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현재 혼수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가 아이에게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했단다. 아이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사겠다고 1달러를 손에 들고 가게를 뒀진 것이다.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은 아이에게 물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아이의 손에는 1달러가 있었다. 노인은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 거든.” 하며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고는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올 거야!”라고 말했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준 음료수를 받고 병원으로 뛰어갔고,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투입되어 아이의 삼촌을 치료했고, 삼촌을 완치시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문학적 치료비를 누군가 지불했다는 것이다. 바로 음료수를 팔았던 노인이었다. 그는 역만장자였던 것이다.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가는 가게에 노인은 없었고, 대신 점원이 편지를 건넸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일세.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 간절함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정금 전도사

하나님의 전지하심

서울성전을 위한 작정기도 선포 바로 일주일 전의 일이다. 우리 목포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이 급하게 발생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40일 작정기도를 선포했다. 그런데 작정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꿈으로 이미 문제 해결의 응답을 주셨고, 그날 저녁 수요예배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서울교회 이전을 놓고 40일 작정기도를 선포하셨다.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보다 서울교회의 기도 제목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다.

성도들과 함께했던 목포교회의 작정기도가 마무리되는 8월 13일 주일,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큰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다. 이 물질은 우리 목포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돈은 우리 교회 것이 아니라 서울교회 건축현금이라는 진한 감동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돈이 되었으니 이제 결정은 내가 할 일이었다. 그래서 주저 없이 그 돈을 모두 서울교회 건축현금으로 드렸다. 당장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급히 원하시는 곳에 드러지니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에도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 목포교회에 뜬금없는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의아해하며 하나님께 묻고 간구했다. 그러나 모든 일 배후에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이 작동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니 모든 실타래가 풀렸다. 서울교회 이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에 문제를 주셔서 간절히 성도들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건축현금 물질을 주시려는 작정이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시다. 하나님의 지식은 그의 존재만큼이나 무한하시다. 그래서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이 구별되지 않으신다.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다 작정하여 마치 현재처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사46:10). 그러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따라만 간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해석되어지고, 결국 감사와 영광만이 그분에게 돌려진다.

송직화 목사